



韓·日·中
통상 불확실성에
몽쳤다
02



Economy

코스피	2557.98 (-49.17)	코스닥	693.76 (-13.73)
금리 (미국 3년)	2.629 (+0.007)	환율 (원·달러)	1469.90 (+4.60) (28일)

韓·美·中 누비는 총수들... 글로벌 현장에서 답 찾는다

이재용, 10년만에 시진핑 면담
中 반도체 협력 강화 견결음

정의선, 트럼프 만나 투자 약속
현지 100만대 생산체제 대전환

최태원, 상법 개정에 작심 발언
“초불확실성 시대, 자율 필요”

국내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변수에 대처하는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8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끝으로 약 1주일 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15년 3월 중국 보아오포럼 이후 10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이번 중국 출장을 통해 현지 전자 및 전기차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현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매출은 64조9275억원으로 전년(42조2007억원)보다 53.9%(약 22조7000억원) 증가

했다. 사업보고서에서 모바일, 가전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지역별 매출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수출 제품의 대부분은 반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판매·생산법인의 실적도 개선됐다.

중국 시안에서 운영 중인 낸드 플래시 생산법인 '삼성 차이나 반도체(SCS)'(시안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11조 1802억원, 영업이익은 1조1954억원을 기록했다. 업황 둔화가 이어졌던 2023년 실적(매출 8조6938억원·영업이익 878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최대 매출 지역인 중국을 방문한 것만 보더라도 현지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출장으로 중국 현지의 첨단 신사업 투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방중 첫날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쥔 회장과 전격 회동을 가졌으며, BYD 본사를 찾는 등 중국 사업과 관련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대규모의 톡톡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26일에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준공식 현장에서 “이곳은 전세계 공장 중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미국 엘라벨 공장 완공 후 20년 만에 HMGMA를 추가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산불 진화중인 육군 장병들

지난 29일 경북 지역 산불진화 지원작전 중인 육군 50사단 장병이 대열을 갖춰 산불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정 회장은 준공식 현장에서 “이곳은 전세계 공장 중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미국 엘라벨 공장 완공 후 20년 만에 HMGMA를 추가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정 회장이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현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91만 1805대, 기아 79만 6488대를 판매하며 양사 모두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0%대 성장’ 경고에 산불까지 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

글로벌 IB, 韓성장률 전망 줄하향
경기침체 우려 속 재정 역할 주목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상권 산불 피해 등 민생 회복과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을 공식화했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 1.5% 대비 0.6%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HSB C도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0%대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B와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8조원 가량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쿠폰’ 사업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이견이 커져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경상권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이 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추경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안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의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커버스토리

탄핵심판 능력에 ‘코리아 리스크’ 확대

환율·증시·신용 ‘빨간불’

외국인 8조 넘게 주식 ‘팔자’
코스피 2600선 아래로 후퇴
환율·CDS 프리미엄 동반 ↑

국정 불안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휘청(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탓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경제분석기관들은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한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3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외국인인 한국 주식 8조 2052억원의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17일 2600선대로 올라섰던 코스피는 28일 2557.98로 밀려났다. 현재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미뤄지자 불안한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6일 두 자릿수(10.19%)를 찍었던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6.61%로 떨어졌다. 미국 S&P500지수(-5.11%), 일본 닛케이지수(-6.95%)보다는 앞서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수익률 부진(-9.63%)에 따른 기저효과와 증시 구원투수로나선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 28일 원·달러 환율은 1469.90

을 기록했다. 올해 원화 가치는 0.16% 올랐다.

하지만, 원화 가치 상승폭은 유로, 파운드, 위안 등 보다 낮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低)’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 이재명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尹 탄핵 신속히 결정해야” /사진 뉴시스
▲ 野, 한덕수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압박

▲ 김문수, “野 국무위원 일괄탄핵 협박 제정신 아냐... 적극 맞설 것”
▲ 안철수 “내각총탄핵은 국회 향한 폭탄 테러...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

▲ 與 “野 4.8조 예비비 주장 엉터리... 즉각 투입 가능 예산은 8분의 1 수준”
▲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 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 1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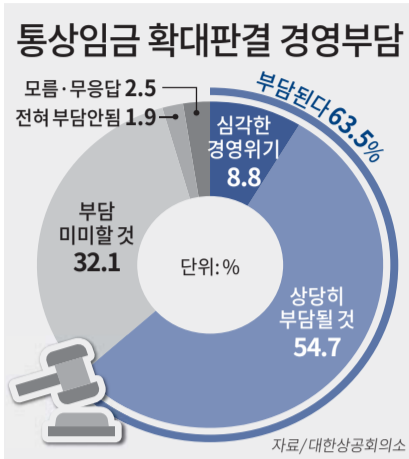
기업 3곳 중 2곳 "경영 부담 커졌다"

대한상의, 상여금 기업 조사 범위 확대로 인건비 부담 커져 상여금·초과근무 조정 등 대응 "노사 합의 기반 제도 보완 시급"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기업 약 3분의 2가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각종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경영 부담을 묻는 질문에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21일 전화·인터넷·팩스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3년부터 약 11년간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으로 작용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

춰 잘 쥐었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 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탄탄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기업 대응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임금 인상 최소화(32.7%)였다.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조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으로,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왼쪽) 일본 경제산업상, 왕 윈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통상 불확실성 대응 '공조' 한일중, FTA 협상 재시동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3국 자유무역 대한 지지 재확인 RCEP 신규 가입 등 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3개 나라가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윈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3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포용·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RCEP 신규 회원 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제기됐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3개국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 깊은 대화나 합의점을 찾는 계기는 아니었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에 모두 공통된 문제 위주로 의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3개국 장관들은 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데 공감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협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 편에서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또 3국 FTA에 대한 구상에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태원 "상법 개정시기, 적절한지 의문"

>> 1면 '韓·美·中 누비는 총수들'서 계속

앞서 현대차·기아는 1990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04년 500만대를 넘어섰다. 2011년 이후 매년 연간 100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연 30만대 규모의 생산 거점 확보로 현지 생산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으며 향후

증설을 통해 120만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정부의 수입차 관세(25%)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 및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금 형편상 상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발(發) 기술 충격, 국내 정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super unknown)'에 놓여 있는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 지금 상법을 바꿀 타이밍(시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치불안 내풍·관세전쟁 외풍... '기업하기 힘든 나라' 직면

흔들리는 자본시장

탄핵선고 지연에 정치혼란 지속 전 세계 '트럼프세션' 우려 확산 "관세 강도에 코스피 상단 영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재계와 자본시장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는 따로 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 안정되면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반면 정치가 안정화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경제가 살고 증시가 우상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두 차례 탄핵으로 본 한국 증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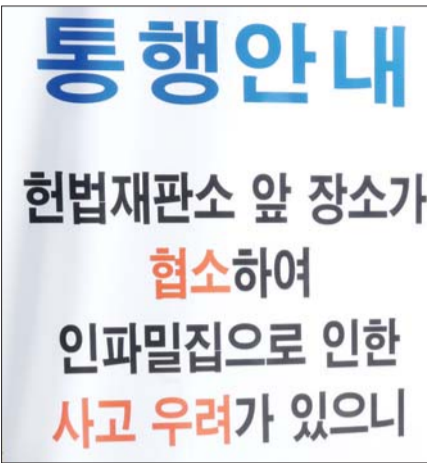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코스피는 어땠을까.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0% 오른 2097.35를 기록했다. 당시 증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증시의 호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2270까지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관정 때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증시가 반등했다. 기각 선고가 난 2004년 5월 14일, 이날 코스피는 768.46포인트로 전일 대비 2.74% 하락한 뒤 다음 거래일(2004년 5월 17일)까지 추가 하락(728.98포인트) 후 반등했다. 연말 코스피는 878.43까지 반등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시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보다는 기각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12.3 계엄사태' 후 4개월가량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시는 장기간 악재를 소화했고, 오히려 상장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코스피 저평가 분석에 상승 동력을 마련했다.

이형중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개월 이상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은 제한적인 데다 지속성도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지난 비상계엄 때의 상황을 참고하면 탄핵 결정 이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외인 매수) 짓누르는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증시가 살아날까. 아니다. 경제(기업 성장)가 살아야 외국인도 돌아오고, 증시도 달릴 수 있다.

현실은 잿빛이다.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14.2% 빠졌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을 달리는 경제지표는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증시를 등진다.

전세계 금융시장도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친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며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3% 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은 외국인 매수세

와 환율에 긍정적이다"면서 "성장 모멘텀이 높은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순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환율의 변동성이 외국인 매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이슈가 더 큰 영향력 미칠 듯

국내 탄핵 이슈보다 더 큰 걱정은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이슈가 일단락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상황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핵폭탄급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의 관세 공격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을 꼭 집어 미국의 대표적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언급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로 보는 '더티 15'에도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위생검역 규제, 정부 보조금, 미국에 불리한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해 온 한국의 30개 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미국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을 이유로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폭탄의 영향권에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음 달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 가능성도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강도가 실제로 높게 유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코스피 증시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형중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소비 심리 둔화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우려를 유발한다"며 "이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채권 등 韓 자산 위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 1면 '탄핵심판 득장에...'서 계속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든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커진 탓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CDS 프리미엄이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

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제로성장을 예상한 캐피탈이코노믹스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 판결 불확실성을 꼽았다.

/원관희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의를필 제250226-00875-ADP (2025.2.26~2026.2.25)

* KB국민카드

식품도 뷰티도 직접 만든다...美 생산기지로 '체질 바꾸기'



⑥ CJ그룹

CJ그룹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10~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을 겨냥한 전방위적 상호관세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K뷰티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고 있다. /CJ올리브영

방침까지 내세우며 세계 경제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방국과 협력국도 예외 없이 관세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

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전면으로 나서며 자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K-푸드 수출의 최대 격전지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9000만 달러(한화 약 2조2000억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다. 오는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식품업체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분위기다.

만두·피자이러 김치도 현지 조달 수풀스에 7000억 들여 공장 추진 푸레쥬르, 조지아에 냉동생지 생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향후 관세 대상이 가공식품으로 확대되면 미국 내 현지 공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식품·베이커리, 대규모 투자 신공장 건설

CJ제일제당은 2019년 인수한 슈완스 공장을 비롯해 미국에만 생산공장이 20개에 달한다. 해외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창출되는 만두와 피자 등 인기 품목에 대해 현지 생산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리고 현재 약 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중서부 수풀스에 북미 아시아인 푸드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에 대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김치도 직접 생산이 가능해졌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말 미국 김치 제조업체 코스모스푸드(Cosmos Food) 인수한 후 '슈완스 코스모스푸드'로 사명을 바꾸고 비비고 김치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김치의 주 원료인 배추나 무 등을 현지에서 조달해 사용하는 만큼 농산물 관세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커리 푸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도 북미 시장을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 무대로 보고,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총 5400만 달러(약 791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연간 1억 개 이상의 냉동 생지와 케이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공장은 향후 북미 지역 푸레쥬르 가맹점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푸레쥬르는 현재 미국 27개 주에서

13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북미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현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CJ올리브영, 미국 진출 본격화

CJ올리브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현지 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에서 쌓아온 K-뷰티 산업 생태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설립한 올리브영 미국법인은 상품 소싱, 마케팅, 물류 시스템 등 현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북미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재 북미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몰'을 북미 고객에 맞춰 현지화하며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UX/UI 전면 개편은 물론, 결제 수단 및 상품 정보 노출 방식도 북미 소비자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다.

올리브영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오프라인 매장 진출도 추진한다. 현재 여러 후보지를 두고 입지를 검토 중이며, 글로벌몰을 통해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인사이트에 국내 옴니채널 운영 경험을 접목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최신 트렌드를 큐레이션한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각·구조조정 통해 체질 개선

최근 CJ그룹은 글로벌 경제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도 진행 중이다.

먼저, CJ제일제당은 핵심 사업부인 바이오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문은 2023년 매출 4조134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영업이익은 2513억원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알짜 사업이다.

올리브영, 美법인 세우고 본격 진출 글로벌몰 현지화 온라인 경쟁력 ↑ 북미 소비자 맞춤형 UX·상품 구성

하지만 글로벌 업황 변화와 시장 수요 변동으로 실적 편차가 커지자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각 예상 금액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식품사업 경쟁력 강화나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진출에 활용될 전망이다.

CJENM은 영화사업부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2년 연속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과거 '명량', '극한직업', '기생충' 등 히트작을 선보였던 CJ ENM은 OTT에 밀려 관객들의 극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극장 영화 제작 편수와 투자가 감소하는 등 영화 산업의 수익구조가 흔들리자 2023년부터 조직 체질 개선을 명목으로 기존 9개 사업본부를 5개로 재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은 CJ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금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이제, 연금도 투자?

크는 연금 없이? N2, 퇴직연금

어디서? 퇴직연금도 내 투자증권에서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 N2, 퇴직연금

730여개 ETF매매, AI 차트 분석 ETF실시간 매매

연금자산을 한눈에 확인, 분석 통합연금자산

추천상품 포트폴리오 퇴직연금 PICK

[투자주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인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DB)은 예금보통예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401K) 퇴직연금은 예금보통예에 따라 예금보통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저변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인당 "제한원까지"(운동도는 금융상품 판매인사별 보호상품)를 한시 보호됩니다. *과세기간 중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 퇴직금자립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편성, 구간별 상이하게 부과되며, 가입자 회사(가) 납입 단, 가입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부수는 발행합니다.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편성: 연간 일차별 평가금액의 평균액,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5154호 (2024.12.19~2025.12.18)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尹 비상계엄으로 국회 갈등·분열... 사회는 심리적 내전상태

국민의힘, '反 민주당·李'로 뭉쳐
아스팔트 극우 중심 여론 결집

민주당, 특검법·탄핵소추안 처리
韓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가가 서로를 악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



범야권과 시민사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 농성 천막의 모습.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를 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뿔뿔 뿜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

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위기에 처했고, 현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버든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 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대군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현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집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현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인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현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공공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들은 현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Shinhan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수수료 효율성 부문 4년 연속 우수 선정

'19, 21, 22, 23, 24년 우수사업자 선정 [출처: 고용노동부]

5회 이상 우수평가는 신한투자증권 뿐!

프로의 %관리를 조건없이 무료로! 신한투자증권 프로 IRP

연금리더와 디지털PB의 1:1 고객 맞춤형 컨설팅 | 대면/비대면 IRP 관리수수료 0원 (단, 상품별보수 별도발생)

퇴직연금 유의사항 [공동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사보유권에 따라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유상품과는 별도로 연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유상품 한도)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액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고액가중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가입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 DC 운용관리 수수료율: 연최소 0.08%~최대 0.25% 사용자 부담 DC 자산관리 수수료율: 연최소 0.10%~최대 0.20% (적립금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 0%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발생 가능) [연금저축 유의사항] 연금저축 ETF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율 0.189733% (다체한 사람은 홈페이지 참조)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사인 심사 및 제25-0480호 (2025년 03월 19일 ~ 2025년 03월 31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 및 제24-05084호(2024년 2월 15일 ~ 2025년 03월 31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가닥 野, 한덕수 ‘재탄핵’ 거론

재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내일 국무회의 상정 결정은 아직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로 코앞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복귀 후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계의 우려에 응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도 문제다. 우선 내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 뿐이지만, 정부가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때문에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8일 이후 현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법률 재의요구안 의결을 못하도록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銀중앙회장 연임 유력... 영업 정상화·양극화 해소 과제

상대 후보 정진수, 자진 사퇴로 오화경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 올해 건전성·영업 정상화 시급 예보료율·지역 양극화 숙제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임기 2기 과제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와 M&A(인수합병) 활성화가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근 오화경 현 회장을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추천했다. 최종 투표는 오는 31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대표가 1표씩 행사하며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당초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그러나 지난 24일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후보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오 회장은 19대 회장 재임때 기존 연봉의 50%만 수령했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

다. 나머지 임금은 금융당국과 소통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비로 활용했다. 민간 출신 중앙회장인 만큼 당국과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였다.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확대를 최대 4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규제완화도 이끌어 냈다. 이어 이달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내면서 8년여 만에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남은 과제는 PF경공매 활성화

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여해 PF매각 플랫폼을 출범했다. PF는 건전성 약화의 주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판매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의 매각이 손해만 남길 것이라 관측에서다. 중앙회 차원의 부실채권(NPL) 매각 유도 및 론 포트폴리오 다양화 도출 등이 요구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올해는 건전성 확보와 영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라면 남은 기간에는 저축은행권의 공통 과제인 예보료율 조정

과 지역별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예보료율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수신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0.40%를 지불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근 인수합병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비율 한도 내에서 여신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권은 50%, 비수도권은 40%다.

지방 저축은행권에서는 권역 외 대출 비중을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대출 수요를 파악해 마케팅을 단행해도 지역 내 공급 비중을 채우지 못하면 권역 외 여신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에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게 지방저축은행의 설명이다.

한 지방저축은행 관계자는 "PF뿐 아니라 비상업용 부동산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타 유지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며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지역 내 여신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확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왼쪽)과 정동훈 롯데카드 전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롯데카드-서울시 관광 콘텐츠 활성화 특화상품 개발 맞춘

롯데카드가 서울시와 함께 특화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롯데카드는 서울특별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관광 콘텐츠에 롯데카드의 여행 서비스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한다.

우리카드 병원·백·온라인쇼핑 등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우리카드는 4월부터 업종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고 30일 밝혔다.

무이자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병원 ▲백화점 ▲손해보험 업종은 최대 5개월을 적용하며 온라인쇼핑 업종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금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일본 여행객 위한 할인쿠폰·캐시백

KB국민카드가 일본 여행객을 위한 할인 쿠폰과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라쿠티트래블에서 일본 전 지역 숙소 결제 시 사용 가능한 20% 즉시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할인 쿠폰은 내달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내달 30일까지 KB국민 JCB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보유 고객에게는 사용 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만엔 이상 이용하면 된다. 3대 편의점에서 원화환산금액 누적 5000원 이상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페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산 기자

車 보험 손해율 90% 육박... 보험료 인하에 적자 부담

대형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88.5% 내달부터 보험료 최대 1% 내려 손보업계, 적자 폭 확대 불가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손익분기점(BEP)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보험사의 적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포인트(p) 급등한 수치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고장과 사고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달부터 다음달에 걸쳐 보

험료가 인하되면 손보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인 80%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93.2%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 88.5%, 삼성화재 87.3%, KB손보 85.1%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손해율 상승은 한파, 폭설로 인한 사고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3~4월 보험료 인하와 봄철 날들이객 증가, 시간당 정비공임 상승 등으로 향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절적 요인 외에 보험사기 증가도 손해율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

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에 달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원의 약 49.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5476억원 대비 4.2% 늘어난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할수록 결국 전체적인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상황 악화에도 자동차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보사들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 우려가 제기된다.

손해율이 90%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낮추면 손보사로서는 추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손보사들은 지난해 차보험손익에서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2023년 4분기 488억원 흑자를 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9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540억원 적자에서 680억원 적자로, 현대해상은 60억원 적자에서 760억원 적자로 각각 적자 폭이 확대됐다. KB손해보험도 24억원 적자에서 24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10배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손해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데다 적자 폭이 커진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물산, 1조 규모 신반포 4차 수주

신규 단지명 '래미안 헤리브 반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1조원 규모의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전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일대 9만2922㎡ 부지에 지하3층~지

상 48층 규모의 총 7개동, 182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도보 100m 이내로 인접해 있다. 반원초·경원중이 인접해 있고, 청담고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세계 백화점·뉴코아·서울성모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반포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힌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



래미안 헤리브 반포 조감도 전경.

/삼성물산

안 헤리브 반포'를 제안했다. 문화유산(Heritage)과 강(River), 숫자 7(Seven)의 결합이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린 혁신 설계를 통해 총 1320

세대를 한강뷰로 제안해 모든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조합이 당초 계획한 한강조망 가능 671세대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

일상·가족 돌보는 새로운 가전... E·C·S 플랫폼 'AI 홈' 혁신

(Easy to use·Care·Saving)

냉장고 등 비스포크 AI 신제품 선보여 '스마트싱스' 초연결 생태계 결합 양자 내성암호 적용... 보안성 강화

삼성전자가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 2025년형 '비스포크 AI' 신제품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는 삼성전자의 AI 기술과 '스마트싱스' 초연결 생태계를 결합해 가전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AI 홈', 나와 가족을 돌본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사용자의 일상과 가족을 돌보는 'AI 홈'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AI 홈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Easy to Use) ▲사용자를 돌보는(Care)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Saving)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비스포크 AI 가전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와 연동해 모든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와이파이 ▲직비 ▲매터 스펙트럼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 별도의 허브 없이도 조명, 스위치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보이스 ID' 기능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인식해 각자의 일정과 사진을 불러 오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확인하는 '내 폰 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 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 기술 전략과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일정 시간 동안 냉장고나 정수기 등의 사용이 감지되지 않거나 빈집에서 가전제품 사용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또 로봇청소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집 안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 AI로 성능 극대화... 신제품 대거 공개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컴프레서와 반도체 소자가 함께 작동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을 탑재해 냉장 성능을 극대화했다. 9형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일정, 날씨, 추천 식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AI 비전 인사이드 2.0' 기능을 통해 자



삼성전자 모델들이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제품 체험 행사에서 AI 가전 신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AI 제트' 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티م' 로봇청소기, '인피니트 AI 콤보' 세탁건조기

동으로 식재료를 인식하는 범위를 기존 33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국내 최대 25kg 세탁 용량과 18kg 건조 용량을 갖췄다. 열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을 개선해 패속 코스 기준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단 79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인피니트 AI 콤보'는 히든 도어 디자인과 고급 메탈 소재를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꾀했다.

청소기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400W의 흡입력을 갖춘 '비스포크 AI 제트'가 소개됐다. 일반 모드에서 단일 배터리로 최대 100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유형뿐만 아니라 공간 형태까지 인식해 최적의 흡입 모드를 자동 조정하는 'AI 모드 2.0'이 탑재됐다. 또

한, '비스포크 AI 스티م' 청소기는 특허 받은 모터 기술로 흡입력을 2배 이상 강화했다. 액체·공간 인식 기능과 자동 급배수 시스템을 적용해 청소 편의성을 높였다.

◆ 보안은 '강화', 친환경은 '지속'

삼성전자는 AI 가전의 보안성과 지속 가능성도 대폭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적용하던 '녹스 매트릭스'를 전 가전기로 확대했으며,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통해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저장하는 '녹스 볼트'를 도입했다. 양자컴퓨팅 공격에 대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높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 기업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다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달 출시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도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는 등 향후 출시될 2025년형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보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와 협업해 재생 소재 함량을 높은 범용 강판을 공동 개발했으며, 폐가전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에어컨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또 폐스티로폼을 포장재로 재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혁신을 넘어 기기 간 연결과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돌보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AI 홈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혁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포스코, 철강 부산물 재활용... 순환경제 기여

제강슬래그 활용 아스팔트 포장 폐플라스틱 결합 철도 침목 개발

포스코가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 여러 부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중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는 제철소 부산물 발생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부산물이다. 현재 천연골재의 고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구성이 높은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주목받고 있다. 제강슬래그는 일반



광양제철소가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활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제철소 내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

골재에 비해 모양이 비교적 일정하고 각진 형상을 가지고 있어, 도로포장에 적용할 경우 맞물림 효과에 의해서 도로의 내구성이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최대 2.2배인 64개월까지 늘어난다.

포스코는 이러한 시장 수요와 물질적 우수성을 파악해 국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기업과 협업해 제강슬래그를 아스콘 골재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국도 3호선 5개 구간 등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 제강슬래그를 적용했다. 지난 2월 광양제철소 내 도로 포장 시에도 제강슬래그를 활용했다.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복합소재 개발한 사례도 있다. 포스코의 사내벤처 기업인 이움텍은 제강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철도 침목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이움텍은 박영준 대표의 주도로 제강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하는 복합재 '슬래스틱'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움텍은 기존 침목에 사용되는 고가의 유리섬유 소재를 일부 슬래스틱으로 대체해 원가절감을 극대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쓰오일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필렌 분리 타워는 높이 118m, 직경 8.5m, 무게 2370톤에 달해 국내 석유화학 설비로는 사상 최대 높이를 자랑한다.

/에쓰오일

두산에너지빌-원익IPS, 금속 AM 기술교류

(적층제조)

검증용 시제품 설계·제작 계획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금속 적층제조(AM) 기술을 도입한 이래 사업 영역과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적층

제조는 금속 분말을 층층이 쌓아 금속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3D 프린팅'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원익IPS와 금속 적층제조(A

M)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차세대 화학증착설비(CVD)에 적용할 AM 제작 부품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나아가 검증용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활동

현지 조 선사 방문... 기술 협력 추진

일 밝혔다.

한화오션이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8조원 규모에 달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25~26일 이틀동안 폴란드 그단스크와 그드니아에 위치한 레몬토바 조선소 및 나우타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선종 다각화·친환경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30

이번에 한화오션이 폴란드 현지 조사를 방문한 목적은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한화오션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사업·제조 분리’ 책임경영 강화 LX하우시스, 생존 해법 찾는다

작년 매출 늘었지만 수익 뒷걸음
건자재 수출 부진에 몸집도 축소
車소재·필름 사업은 수출로 선방

노진서·한주우 각자대표 체제 출범
B2C·현지화로 내외시장 공략 강화

LX하우시스가 사업 전반과 제조 부문을 따로 관장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올해 ‘보릿고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본업인 건축자재 부문이 내수·수출 모두 통과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6일 주총과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한 노진서 대표이사 사장, 한주우 대표이사 부사장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LX하우시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은 매출 3조5720억원, 영업이익 975억원, 당기순이익 4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은 직전년도의 3조5258억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23년의 1098억원보다 하락했다. 특히 창호, 바닥재 등 건축자재 사업에서 전환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축자재 매출은 2조6471억(2022년)→2조5681억(2023년)→2조5336억원으로 점점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축자재 매출은 전체의 70.9%로 절대적이다. 건축자재 사업의 경우 수출이 최근 3년간 7205억→6252억→6051억원으로 점점 감소하면서 몸집도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내수가 1조9265억원(2022년)에서 1조9285억원(2024년)으로 그나마 버텼다.

이런 상황에서 데코시트,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소재·산업용 필름 사업은



노진서 사장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22년 당시 9647억원이던 관련 사업 매출이 지난해 1조375억원까지 늘면서다. 이 기간 수출이 4979억원에서 5888억원으로 증가해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

LX하우시스는 올해를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복합위기로 판단하고 있다. 올 한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위기 대응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내 B2C시장 공략 강화, 해외시장 매출 확대를 2025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노진서 사장은 사업 전반을, 한주우 부사장은 제조 부문을 각각 총괄할 수 있도록 2인 체제로 사령탑을 새로 꾸린 것도 이런 포석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노 사장은 ㈜LG 기획팀장을 거쳐 LG 전자에선 로봇사업센터장, 이후 LX홀딩스에선 CSO(최고전략책임자)와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한 경영전략통이다.

한 부사장은 78년 LG전자에 입사해 COO 창원생산그룹장·구매센터장을 거쳐 글로벌생산부문장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LX하우시스에서 최고생산책임자(CPO)를 맡아왔다. 나이는 58년생인 한 부사장이 68년생인 노



한주우 부사장

사장보다 열살 많다. 두 대표에게 경영과 제조를 각각 맡도록 해 내실과 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LX하우시스는 창호, 건축용단열재, 인조대리석, 바닥재, 벽지, 주방가구 등 주력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출시 이후 단숨에 베스트셀러 창호 등 급격한 ‘LX Z:IN 창호 부프레임’을 중심으로 국내 창호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대형 토달 인테리어 전시장인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를 비롯한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해외시장 공략도 더욱 강화한다. ▲제품개발·생산·영업 전 기능 현지화 ▲현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서다.

인조대리석, 산업용필름, 바닥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뛰어난 제품들로 북미와 유럽을, 차별화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산업용 필름으로 유럽, 그리고 럭셔리리비탈타입(LVT) 바닥재로 북미시장의 문을 추가로 두드린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확대

중기중앙회·삼성, 200곳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2018년부터 7년간 약 1200억원 규모로 총 2367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

31일부터 접수를 받는 올해 사업은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진행되며 총 213억원 규모로 20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은 실시간 공정제어 및 설비제어·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가능한 ‘고도화’ 수준 구축을 대상으로 총 80개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부터 추진한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규모와 예산을 확대

했다. 이를 통해 10개 지자체와 협업해 총 105개사, 최대 6000만원 또는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참여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를 포함해 올해 추가로 강원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구미시, 포함시까지 총 10개 지자체가 동참한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게는 ▲삼성전자현직 전문가(170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 6~10주 업체 상주근무)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니스포럼 참가 ▲삼성 교육 인프라 활용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스마트365센터를 통한 사후 유지관리 등의 차별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도 기존 사업과 더불어 지자체 협업사업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장애인기업 17만개… 고용·매출 동반 성장

중기부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
전년 대비 기업수 5.9% 증가

장애인기업이 17만여개로 여기에 종사하는 장애인 인력은 18만여명이었다. 1개사에 1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소상공인이거나 5인 미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기업촉진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실시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17만 4344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 8280명, 총매출액은 69조 7000억

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기업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만 569개사, 중소기업은 1만 3775개사로 나타났다.

업종별 기업체 수는 도·소매업이 5만 1696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만 7021개사, 숙박·음식점업 2만 6495개사 순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 8280명으로 이 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8만 386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1.8%를 차지했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총액은 69조 6601억원, 영업이익은 6조 5326억원으로 조사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호석유화학, 고부가 주력 강화로 미래 대응

전기차 타이어용 SBR 수요 선점
이차전지 도전재 CNT 새 성장동력
BPA·MDI·에폭시 등 주력 경쟁력 ↑

미증유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주력 사업영역의 근간을 지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 심화되는 업계의 트렌드를 분석해 미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의 급 성장과 맞물린 고(高)기능성 합성고무 제품인 스티렌부타디엔고무(SSBR)의 고액 접점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SBR은 타이어 기술의 한계로 인식되는 내구성, 마모, 연비 요소들의 모순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차체의 배터리 무게가 증가하고 전기 동력 특성상 차량의 급격한 기동 및 정지가 늘어나는 등 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금호석유화학

의 내구성 및 마모 이슈가 대두되며 업계 뿐 아니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SSBR의 인지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용 타이어에 특화된 SSBR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의 탄소나노튜브(CNT) 역시 이차전지 소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 초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강도를 높이는 복합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새롭게 이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며 CNT소재 역시 양극재와 음극재의 도전재 원료로 각광받는 등 새로운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BPA, 에폭시 등 주력 사업 전반에 걸쳐 업계 내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OCI와 에폭시 수지 원료인 ECH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한 합작사 ‘OCIKumho’는 말레이시아의 산업단지 내에 연말을 목표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우레탄 원료 MDI의 20만톤 증설을 완료해 생산능력 61만톤 체제를 완성한 금호미쓰이화학은 친환경 및 저탄소 MDI 제품의 개발은 물론 각종 환경 인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동기어, 현대車 출신 서종환 대표 영입

“국내외 입지 넓혀 지속성장 이끌 것”

대동그룹 계열 대동기어가 전동 파워트레인 사업을 위해 현대자동차 출신의 글로벌 사업 전문가인 서종환 대표(사진)를 영입했다.

30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67년생인 서종환 신임 대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93년 당시 현대차에 입사, 지난 2023년까지 30년간 영국 판매법인, 아중아시아부(아시아·중동·아프리카), 미국 판매법인 영업 총괄을 거쳐 해외영업본부 글로벌채널기획팀장, 글로벌사업관리본부 글로벌채널전략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를 통해 현대차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채널을 선도하며 해외 판매망을 확장하는 등 시장 경

쟁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고객 경험 개선, 딜러망 강화와 함께 여러 글로벌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 능력도 입증했다.

대동기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서 대표를 통해 해외사업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서 대표는 “파워트레인 부분의 핵심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품질과 가치 제공에 힘쓰는 한편 더 많은 고객사, 더 넓은 사업군으로의 확장을 통해 국내외 입지를 넓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GPT-4o, 저작권침해 논란 확산

멀티모달 언어 이해능력 뛰어나
논리 기반 이미지 구성능력 강화

특정 모티브·기성작품 작품 모방
AI기업, 학습 데이터셋 비공개
법적규제·투명성 확보 장치 없어

오픈AI가 GPT-4o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은 기존 DALL·E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성형 엔진으로, 멀티모달(Multi-Modal)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존 최고 수준의 이미지 생성 AI로 평가된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5일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추가된 이후 오픈AI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정도로 사용자 수요가 몰렸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지 생성 AI의 인기가 폭발하며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며 “실제로 GPU가 녹고 있다. 사용자가 급증하며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PT-4o는 챗GPT 플러스 사용자 기준으로 분당 1, 2장, 시간당 30~50장 수준의 생성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이미지.

오픈AI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의 무료 계정 적용은 유료한 상태다.

GPT-4o 이미지 생성 AI가 ‘가장 진보한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뛰어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에 있다. GPT-4o는 텍스트로 전달된 객체 간의 의미 관계와 맥락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이미지 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 예컨대 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가 개별 객체나 문맥 해석, 시점 유지 등에서 한계를 보여온 것과 비교되는 차별점이다.

특히 GPT-4o는 ‘논리 기반의 구성’과 ‘대화형 맥락 유지’ 기능을 통해 구조적 배치, 텍스트 삽입, 레이아웃 반복 등 정밀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논리 기반의 이미지 구성 능력이 강화되면서, 컷 만화 제작 또한 한층 간편해졌다. GPT-4o 이전의 이미지 생성 AI는 각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동일 인물의 반복 생성, 시점 고정, 장면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GPT-4o는 언어적 맥락과 내러티브 구조를 파악해 레이아웃 반복, 캐릭터 연속성, 장면 전환 기법

등 만화 제작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캐릭터를 모티브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성 작품의 작품을 모방하는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작가나 스튜디오가 개발한 화풍, 색채, 붓터치, 표현 방식 등이 고유한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AI가 이러한 스타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품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하더라도,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개별 이미지를 단순 모사하는 수준을 넘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화풍, 색감, 붓터치, 인물 비례 등 ‘스타일 그 자체’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디퓨전 모델’이다. 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해, 훈련된 AI가 수천~수만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마치 흐릿한 스케치를 점차 선명하게 다듬듯, AI는 학습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들에

서는 ‘LoRA(Low-Rank Adaptation)’나 ‘드림부스’ 같은 세부 기법을 통해 특정 인물이나 스타일을 수십 장의 이미지로 학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스타일 유사성을 넘어서 ‘A 작가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정밀한 화풍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

GPT-4o 역시 자체적으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을 활용해, 사용자가 묘사한 스타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과 유사한 화풍이나 시각 구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배경에, 수채화 질감과 붓터치를 더해줘”라고 입력하면, GPT-4o는 단순히 수치적 스타일이 아니라 그 문맥적 조합을 이해한 뒤 스타일을 구현한다.

이는 단순한 사진 필터나 변환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으로, 창작인지 모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사용자나 창작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셋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규제나 투명성 확보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기술 오남용 등… AI 윤리 문제 재점화

백악관, 정치적 목적으로 기능 남용
·챗GPT로 약자 괴롭힘 선전 ‘지적’
예술가 개인 화풍 재현은 거부하지만
스튜디오는 허용… ‘잘못된 이분법’

오픈AI가 이달 25일(현지 시간) 챗GPT-4o에 탑재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필터를 씌운 사진을 만들어 공유하는 게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퍼지면서 기술 오남용, 저작권 침해 등의 AI(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챗GPT로 지브리 그림체를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게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성형 AI 모델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버지는 백악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지난 28일(이하 현지 시간) 공식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백악관은 “팬타닐 불법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가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한 뒤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됐다”며 “그녀는 체포될 때 울었다”는 설명을 달았다.

더버지의 테크·정책 분야 수석 에디터인 에디 로버트슨은 “백악관의 X 계정은 눈물 흘리는 구급자의 사진을 올렸고, 그 인물이 체포된 팬타닐 밀매자이자 불법 채류자라고 자랑하듯 적었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의 X 계정에 지브리 그림체를 모방해 만든 불법 채류자 이미지가 게시됐다. /백악관의 X 게시물 캡처

다”며 “그리고 그 뒤엔 거의 확실히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수갑 채우는 경찰관의 만화 이미지를 덧붙였다”고 밝혔다.

에디는 “백악관이 미국 내 이민자들을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추방하려는 시도를 챗GPT를 활용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오픈AI와 샘 올트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챗GPT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여운 사진을 만드는 밈을, 백악관이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선전하는 것을 오픈AI가 묵인하는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며 “오픈AI는 이를 진정 ‘선한 AI’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지브리 밈의 그늘에는 이민자 탄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외에 예술가의 허락 없이 AI 훈련에 무단으로 사

용된 창작품 문제도 남아 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27일 공개한 GPT-4 기술 문서를 통해 예술가들의 미학을 재현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생존 예술가의 작품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시도하려는 경우 챗GPT가 이를 거부하는 기능이 작동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은 허용된다.

시사 잡지 더애틀랜틱은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GPT-4o가 처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물로 훈련됐는지 묻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의 미학을 이토록 잘 모방할 수 있었는지, 미야자키의 작품으로 훈련됐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뒤따른다고 짚었다.

오픈AI가 예술가 개인의 화풍 재현은 막으면서도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미지 제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술가와 스튜디오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미야자키의 경우 그의 개인적 감성이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정의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애틀랜틱은 “지브리 스타일’이 곧 ‘미야자키 스타일’이다. 만약 오픈AI가 GPT-4o는 그의 작품으로 훈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역설이 발생한다”면서 “특정 예술가의 작업물이 아닌 그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인상만으로 훈련된 모델이 그 스타일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hjk1@



KT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2025년도 KT디지털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자긍심 고취와 장학생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T

KT, AI 기반 미래기술 인재육성 지원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KT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2025년도 KT디지털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장학증서 수여, 팀 빌딩 프로그램, 운영 방향 공유,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 세션에서는 장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공유하고 KT에 기대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KT는 장학생들이 AI 기반의 미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관련 심화 교육, KT 임직원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멘토링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차량용 AI 에이전트로 영역 확장

현대차그룹과 공동개발 나서

네이버가 커머스, 플레이스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 전략에 이어 모빌리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다.

네이버는 30일 현대차그룹과 협업해 차량용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고, 이 기술을 현대차의 개발자 컨퍼런스 ‘플레오스(Pleos) 25’를 통해 일부 공개했다. 양사는 현대차의 차량 운영체제 ‘Pleos OS’와 인공지능 플랫폼 ‘글레오

(Gleo) AI’에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연동해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

이재후 네이버랩 부문장은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해 “사용자가 차량 내에서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음성 명령을 사용하면, 그 의도를 파악해 목적지 설정은 물론 날씨, 뉴스, 일정 등 맞춤형 정보를 AI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개인투자자 수익률 곤두박질... 기관·외인 '10분의 1' 수준

개인 상위종목 평균 수익률 2.22% 기관·외인, 방산·금융株 중심 투자 증권가 "선부른 추격매수는 피해야"

#대기업 부장인 이모(43)씨에게 '주식' 두 글자는 금기어다. 지난 1~2월 국내 주식에 3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수백만원을 잃어서다. 10개가 넘었던 투자 종목 중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화오션이다. 이씨는 "'공 오르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새 500만원 넘게 까먹는 중"이라며 "정신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주식 창도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6%대를 기록 중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한풀 꺾였다. 부진한 투자성적 탓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커지면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곤두박질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깨졌던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개미 '필패' 이어질까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22%였다.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산 종목을 수익률을 평균값화해 산출했다.

〈투자 주체별 1분기 수익률 비교(2025 1월 1일~3월 27일 기준)〉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종목명	등락률	종목명	등락률
삼성SDI	-19.59%	SK하이닉스	19.03%
알테오젠	13.7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3.06%
HD현대일렉트릭	-20.42%	네이버	-0.55%
HD현대미포	-24.96%	포스코 홀딩스	18.54%
삼성중공업	21.86%	카카오	8.9%
현대차	0.24%	한국항공우주	41.17%
한화오션	80.72%	LIG넥스원	12.93%
HD현대중공업	-3.83%	현대모비스	18.18%
한화엔진	14.43%	현대로템	108.05%
유한양행	-1.17%	삼양식품	8.76%
두산	18.63%	레인보우로보틱스	67.79%
에코프로비엠	-1.55%	카페24	54.57%
아모레퍼시픽	-1.72%	삼성바이오로직스	11.59%
LG전자	-1.32%	한화	52.79%
KB금융	-3.26%	DL이앤씨	31.88%
LG씨엔에스	0%	휴젤	18.18%
오름테라퓨틱	0%	한국전력	11.22%
KT&G	-4.76%	산일전기	-18.95%
산일전기	-18.95%	주성엔지니어링	37.35%
GS	-4.71%	HMM	13.53%
계	2.22%	계	30.90%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기관(25.33%)과 외국인(30.90%)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전자(-3.4%)를 비롯, 현대모비스(-19.5%)와 카카오(-9.5%), 현대차(-11.8%), LG전자(-9.5%) 등도 수익률이 부진했다.

그나마 SK하이닉스(3.5%)와 네이버(2.2%)가 체면치레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SDI(-18.59%)를 비롯, HD현대일렉트릭(-20.42%)와 HD현대미포(-24.96%), 산일전기(-18.95%), KB금융(-3.26%), LG씨엔에스(-1.32%) 등도 수익률이 부진했다. 그나마 한화오션(80.72%)과

삼성중공업(21.86%), 두산(18.63%), 알테오젠(13.72%)가 체면치레했다.

개미들은 산 2차전지 관련주의 약세도 수익률 부진으로 이어졌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해 올해 1분기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진수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2차전지 업종의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추가 악화될 전망"이라며 "전기차 수요 절벽의 정점은 올해 1분기로 보고 있지만, 과급 효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의 재고 조정 영향권은 상반기까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미 매수종목 중 12개가 '-', 기관·외국인 'A' 학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개인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 사들인 상위 20개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은 각각 3개, 2개씩이었으나 나머지는 플러스였다.

기관과 외국인은 현대로템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안에 담았는데, 올해 들어 현대로템은 105% 뛰었다. 게다가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93% 오르면서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

외인들은 시가총액 상위권의 대형주와 반도체·방산주를 중심으로 투자에

나섰으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는 코스닥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순매수 범위를 상위 20개 종목까지 넓혀 보면 레인보우로보틱스(68%), 카페24(55%), 주성엔지니어링(37%), 휴젤(18%) 등의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는데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기전자·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전략이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KB금융(-3.26%), 신한지주(1.57%), 하나금융지주(8.45%), 메리츠금융지주(18.08%) 등 금융주를 다수 담았으며, 경기 방어 종목과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필수 산업군에 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매수 시점·투자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선부른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수익을 내려면 '공포에 (주식을) 사고 탐욕에 판다'는 격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당국, '상법 개정안' 갈등 고조... 정재계 확산 양상

이복현 금융위원장, 거부권 반대 의견 김병환 금융위장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 내부 의견이 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관가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30일 정재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 차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장은 의견서에서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급 협의체 '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이 원장이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부 내 기류에 대한 향의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 원

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장은 정부의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을 넘어 재계와 정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식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조 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사 총 실 의무를) 인정한다"며 신중론을 시사한 바 있다. /허정운 기자 zekova@



넥스트레이드 본사 /허정운 기자

넥스트레이드 796개 종목 거래 가능

오늘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796개로 확대한다. 대량·바스켓매매도 시작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4개 종목이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것을 반영해 31일 최종 거래 종목이 796개로 결정했다. 제외된 종목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엠클론, 이오플로우, HLB생명과학이다.

거래종목 확대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저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출범 4주차(24~28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346억원에 달했다. 출범 1~2주차(4~14일) 155억원, 3주차(17~21일) 1351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종목당 평균 거래대금으로 비교해보면 1~2주차 15억5000만원, 3주차 12억2000만원, 4주차 58억2000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31일부터는 대량·바스켓매매도 시작된다. 대량매매는 5000만원 이상, 바스켓매매는 5종목·2억원 이상 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허정운 기자 zekova@

'NSDS' 도입... 무차입 행위 상시 탐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공매도 재개

거래정보 별도 기록·보관... 조작 차단

31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만에 전면 재개됩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 및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

투자협회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Q. NSDS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통제하나요?

A.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통제를 위해 글로벌 민간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등)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 오류를 적발하고 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Q.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A.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습니다.

Q.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여 조작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Q.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한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운 기자 zekova@

“직무 적합성 따져 직접 영입한다” 신입 뽑을 때도 ‘헤드헌팅’ 대세

**고용부, 작년 하반기 채용동향
인재풀서 찾아 직접 소통 후 영입
신입 42% ‘다이렉트 소싱’ 활용
기업들, 채용연계형 인턴제 확대
“정규직 전환 전 역량·태도 따져”**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 직원 채용시 헤드헌팅을 활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채용 담당자가 확보한 인재풀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도 10곳 중 4곳이 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12월24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387개 기업(응답률 77.5%)이 응답한 결과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식에 더해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중심으로 헤드헌팅이나, 채용담당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 인재풀에서 찾아낸 후보자와 직접 소통하며 영입하는 적극적 채용방식인 ‘다이렉트 소싱’ 방식이 많이 활용됐다.

신입직원 채용방법(복수응답)은 채용공고(88.1%)에 이어 헤드헌팅(61.2%), 다이렉트 소싱(42.4%), 현장 면접 채용(40.1%), 산학 연계 채용(31.3%), 대학 협업 채용(3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방법에서 헤드헌팅(81.9%), 다이렉트소싱(51.2%) 비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센터 기업채용공고 게시판에 구인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율이 높아졌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지원자의 업무성과 또는 평판 검증’(35.1%), ‘직무 적합성 확보’(33.2%) 등을 위해 다이렉트소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일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기다리는 채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채용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입직원 채용시엔 인턴제도를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9.9%는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중 68.1%는 인턴기간 중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운영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인턴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84.8%였고, 정직원 전환 기준은 ‘태도 및 인성’(65.2%), ‘직무역량’(62.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정환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시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기 영농재개 위해 다각적 지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불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30일 경북 의성 지역 내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원 및 축산농장을 찾아, 농업 분야 피해와 응급 복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상북도와 의성군에 전방위적인 피해 복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성, 청송 등은 과수원 등에 피해가 많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활용해, 전소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협, 농기계·자재 회사 등과 협력해 농기계·비료·농약·농기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의성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대형산불 재난을 겪은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어 축사시설 전소로 가축이 대부분 폐사된 양돈농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축사 복구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력 등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안정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기되는 농산물 수급 우려와 관련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과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물산업 매출 50조 돌파… GDP 대비 2.1%

환경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국내 물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 기준 GDP는 2400조 원이었고 물산업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다.

환경부가 30일 공개한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8075개로, 전년도(1만7553개)에 비해 약 3% 늘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9199개,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772개 등이었다.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50조9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연도 GDP(2401조2000억 원)의 2.1%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종별 매출 규모를 보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7조1570억 원(53.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 14조 9752억 원(29.4%)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을 비롯한 청소 및 정화업 4조4880억 원(8.8%)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3768억 원(8.6%)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 폭은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대비 4.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수출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450개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 이중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분야가 40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종사자 수는 21만1385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7만8502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특화지구 1호’ 순창·신안 선정

농식품부, 5년간 최대 100억 투입
임산물·유채꽃 융복합산업 육성

전북 순창과 전남 신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제1호 대상지로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 1차 대상지에 2곳(순창군, 신안군)을 선정했다.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추가한 것이 이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에 정부가 시설 신설·재배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순창군과 신안군은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2개 군에 각각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순창은 구립면 운남리·방화리 일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올해 준공 예정)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해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

신안은 ‘엘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원산지 일대에 72헥타르(ha)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

든다. 바로 옆에 자리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t)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를 조성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하에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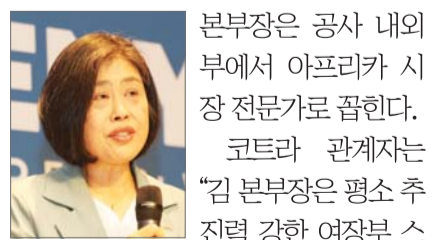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트라, 63년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 선임

김명희 혁신성장본부장 임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31일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사진)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상임이사에 여성이 임명된 건 공사 설립 이후 63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희 본부장은 1995년 입사 이후 브뤼셀, 파리 등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알제,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지역전문가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김



본부장은 공사 내외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평소 추진력 강한 여장부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동료들의 든든한 신뢰를 받아 왔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에너지 인프라·서비스·ICT·소비재·바이오의료 등 수출 신산업의 해외마케팅을 책임지는 혁신성장본부를 이끌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NATURAL PRODUCT



모애뜰

엄마의 사랑으로 구워낸 모애뜰 누룽지



- ✓ 100% 국내산 원료
- ✓ 200kcal 이하의 저칼로리
- ✓ 황동판에 구워낸 전통의 맛
- ✓ 50g 한팩으로 간편하게
- ✓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로



누룽지탕 & 송늬



누룽지 라면



누룽지 김치죽



누룽지 백숙



간편한 식사



레저 활동시



온가족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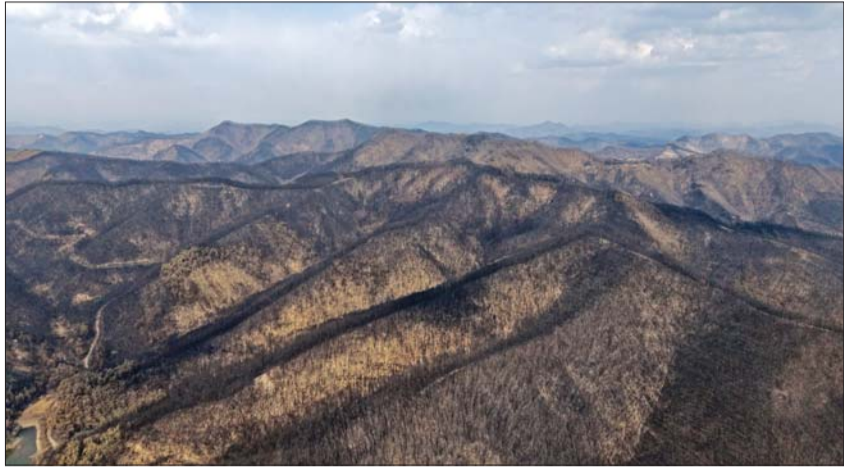


NAVER

▼
🔍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처참’... 도움의 손길 554억 모여

헬기조종사 포함 총 26명 숨져
6개 시군·31개 지역 통신 불가
중대본, 재난구조사업비 등 동원



지난 29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이 산불에 심하게 훼손되어있다. /뉴스5

경북지역 대형 산불이 진화된 후 피해가 잠정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처참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불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한 26명(안동 4, 청송 4, 영양 7, 영덕 9, 의성 2명)이 숨졌다.

안동에서는 옛 안동역 앞마당, 의성은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강당, 청송엔 보건의료원 주차장, 영양에는 군청 앞마당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으나 영덕은 유가족의 반대로 아직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산불로 6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통신이 불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무선 중계기 921개가 불에 탔다. 유선 전화와 인터넷 7086개 장비도 불에 탔으나 빠르게 정화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7개 구간 중 1개 구간이 차단됐으나 다행히 정전구간은 없었다. 주택·건물의 7546개 전력량계 등이 불에 타면서 피해를 봤다. 1751개(안동 86, 청송 230, 영덕 1,

420, 영양 15)지역에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시설은 43개(안동 22, 의성 4, 청송 9, 영양 3, 영덕 5개)가 피해를 입었고 경북도는 단수지역 7곳에는 운반급수를 지원하고 병물 12만 6749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은 3285개(안동 1092, 의성 292, 청송 625, 영양 104, 영덕 1172개)가 탔다.

문화재는 사찰 5개(안동 2, 의성 2, 청송 1), 불상 2개(의성 2개), 정자 2개(안동 1, 청송 1개), 고택 12개(안동 6,

청송 6개), 기타 4개(안동 3, 영양 1개) 등 25개가 피해를 봤다.

농작물 482ha, 시설하우스 281동, 축사 43동, 농기계 746대, 농산물 유통기공공장 6개와 축산창고 3동도 불에 탔다.

한우 13마리, 돼지 2만4470마리, 양봉 241통도 소실됐다.

영덕에선 노물항의 어선 16척과 인양크레인 1대, 양식장 6개 중 2개가 전소됐고 나머지는 일부 피해 및 단전 피해를 봤다. 수산물 가공업체 1개의 공장도 모두 탔다.

은어양식장에서는 단전으로 은어

50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번 산불로 화마가 휩쓸고 간자리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시설 43곳의 1991명(포함 283, 안동 1023, 의성 231, 청송 320, 영양 29, 영덕 11, 울진 94명)도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경북도는 피해주민에게 불편함 없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바로 처리하는 한편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자를 즉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난구조사업비 2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세부담 완화와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 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화순군이 3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최종 9200명, 55억여 원 규모로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가오는 '2025년 화순 봄꽃 축제'에 맞춰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신안김밥 9종, 식당에 기술 전수

전남 신안군은 신안김밥 9종을 관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

신청은 판매가 준비된 업체들로 3월 31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에서 받는다.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김밥페스타를 통해 판매됐던 김밥 중 인지도가 높았던 김밥을 선택해 레시피를 교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진흥원

'부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열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진흥원)은 다음 달 3일 해운대구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서 스마트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과 함께 '부산 게임개발자 콘퍼런스: 게임 데브인 사이트 라운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오렌지플래닛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글로벌게임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게임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로 BIC(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2025년 BIC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이어 ▲CFK의 '콘솔 시장 입문 전략' 등 현업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게임 개발사들의 데모 시연과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금정구, 자원순환행정 '최우수'

부산시 금정구는 부산시에서 진행된 구·군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에서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정구는 지난해 지역 정화 자율 봉사단체인 금정클린지킴이의 지역 순회 모듬 청소 4회 추진하면서 무단 투기 예방 가두 피켓 홍보를 함께 진행해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에 힘썼다.

또 상가 앞 담배꽂초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매봉기 가두 및 상가 방문 홍보를 진행해 상가의 '내 가게 앞 자율 청소' 참여를 높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 1호 중처법' 현재서 다룬다

과잉금지 원칙위반 대해
시장경제 혼란 가능성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소 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 A(60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중처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공정을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 대기업도 전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보다 반드시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형사 책임은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시 하청은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점도 짚었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했고, 현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연기된다.

한편 A씨 등은 2022년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구제역 진정세... 내달 종식 가능성

나흘 연속 확진 사례 없어

전남 축산농가를 덮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대로 라면 4월 중·하순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차단방역 효과에 안도하면서도 축산 농가가 밀집된 인근 시·군, 한우 이외 우제류로의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암도포면 한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 감염소가 발견된 이후 24~27일, 나흘 연속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남엔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 한 건의 의심 신고도 접수되

지 않은 것은 지난 13일 최초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영암 도포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일 3건, 15일 1건, 17일 3건, 18일 2건, 19일 2건, 20일 1건, 23일 1건의 구제역 감염 농장이 발생했다. 수 치상 뚜렷한 진정세다.

진정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4월 중순께 구제역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시, 대전서 펼친 '관광설명회' 성료

대전 여행업체 만나 B2B 상담

전남 여수가 대전권 여행사와 관광기관 등 130여 명을 초청해 펼친 '2025 여수 관광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전 ICC호텔이 틀간 개최한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위한 공동 마케팅 일환으로 마련됐다.

남해안 바다를 낀 여수 지역 숙박업체와 관광시설 17곳이 대전 여행업체들과 만나 기업 간 거래(B2B) 상담을 펼치며 관광 자원과 방문객 혜택을 알렸다.

시는 최신 관광정책과 지역 축제, 스마트 관광을 위한 '여수엔' 앱 등 여



여수시는 대전 ICC호텔에서 이틀간 '2025 여수 관광설명회'를 진행했다.

수의 핵심 전략을 소개하는 발표와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전 지역 여행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또 대덕문화관광재단과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자체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수(전남)=전정선 기자 spirit@

사하구,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총 66억 예산 투입

사하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사하구는 동아대학교와 부산여자고등학교 인근 거리를 전선로 전신주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낙동대로516번길과 낙동대로520번길 일원의 약 600m 구

간으로, 이곳은 유동 인구가 차량 통행이 많아 전주 등 지장물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통학로 또는 전통 시장, 도시재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3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가격 넘어 품질까지 검비”... ‘밸런슈머’ 사로잡기 총력전

(균형+소비자)

유통업계, ‘합리적 실속’에 방점
이마트24, 초저가 PB 실속 공략
브리타, 미니 정수기로 효율 강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런치 1만원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고려한 전략으로 소비층 확보에 나섰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단순히 저렴한 상품만을 선보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까지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가격과 품질 모두를 충족시키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소비를 추구하는 ‘밸런슈머’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밸런슈머는 균형을 의미하는 밸런스(balance)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저렴한 가격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가성비 트렌드를 넘어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신중히 따지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다.

이에 기업들은 밸런슈머를 겨냥해



이마트24 ‘상상의끝’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관계자 모습.

/이마트24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실속형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마트24는 올해 초부터 자체브랜드(PB) ‘상상의끝’을 통해 김밥, 삼각김밥, 덮밥, 햄버거, 롤티슈 등 먹거리부터 비식품까지 실속형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마트24는 그중에서도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춘 초가성비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1900김밥 ▲900삼각김밥 ▲2900짜장면 ▲3600비빔밥 ▲2900

덮밥 ▲2200치즈버거 등이 마련됐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식재료 조합을 찾는 데 공을 들였다”며 “이를 통해 자체 마진을 최소화해 일반 상품 대비 최대 40% 저렴한 초저가 PB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 친환경 정수기 제조사 브리타 역시 최근 가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갖춘 미니 정수기 ‘글라스 저그’를 선보인다. 이는 국내 최초로 붕규산 유리 소재를 적용한 미니 정수기로, 화학물질

인 비스페놀A이 함유되지 않은 소재를 활용했다.

특히, 브리타 정수기 필터 하나로 최대 150L의 물을 정수할 수 있어, 500mL 생수병 약 300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호텔가도 밸런슈머 잡기에 나선다. 서울드래곤시티는 내달 7일부터 1만원대로 호텔 런치를 즐길 수 있는 ‘킹스베케이션 스카이 런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식사는 서울드래곤시티 31층 라운지 공간인 ‘킹스베케이션’에서 제공되며, 호텔 셰프가 직접 조리한 메인 메뉴에 베이커리와 커피 등의 후식까지 마련됐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점심 외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고급스러운 호텔 공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단하는 소비층들의 기대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올라갔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단순 가격만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품과 서비스 품질까지 함께 고려해야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쿠팡

중소 식품사 입점 확대

쿠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중소 식품사들의 입점이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20년간 죽을 연구한 전문 브랜드 ‘죽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죽이야기는 한 손에 잡히는 파우치 형태 포장으로 어디서든 죽을 짜서 먹을 수 있는 상품인 ‘짜죽’을 선보인다. 이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성당’ 브랜드가 ‘경성당 현미누룽지’를 로켓배송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체당이나 산양유 등 건강에 특화된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식품사들의 입점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쿠팡에 입점한 ‘아임고트’는 국내 최초로 뉴질랜드산 산양유를 활용해 씹어 먹는 유산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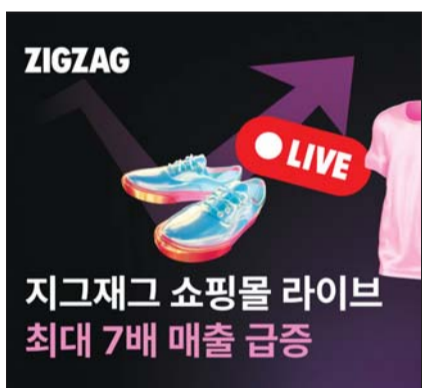
단백질스테비아커피믹스를 생산하는 ‘제누’와 홍삼 및 유기농 주스를 제조하는 ‘함소아제약’ 브랜드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쿠팡 로켓배송에 입점했다.

쿠팡 관계자는 “건강소비를 중시하는 고객 수요에 발맞춰 우수한 품질과 제조능력을 갖춘 중소 식품사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셀렉션 확대는 물론, 중소 기업들의 판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지그재그, ‘라이브 커머스’로 플랫폼 재도약

입점 쇼핑몰 매출 평균 3배 ↑
올해 단독 방송 60회 이상 확대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 라이브 방송 관련 매출 상승 포스터 이미지.

/카카오스타일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지난해부터 확대해온 라이브 방송이 입점 쇼핑몰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그재그는 내달부터 라이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내달에는 큰 사이즈 의류를 취급하는 쇼핑몰들이 연합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에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할 예정이며, 쇼핑몰 ‘매니크’의 라이브 방송에도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

여할 계획이다.

쇼핑몰 ‘니어웨어’도 지그재그 단독 상품을 중심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또, 신진 판매자를 발굴·육성하

는 ‘투키셀러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생 쇼핑몰 ‘페미니크’의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지그재그는 지난해부터 입점 쇼핑몰 단독 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특정 쇼핑몰 대상 라이브 방송을 약 40회 진행했다.

카카오스타일은 라이브 방송이 매출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진행한 입점 쇼핑몰들의 매출은 방송 전주 대비 평균 120%,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1030 여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평균 시청자 수가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쇼핑몰 ‘베이텔리’는 신상품과 자체 제작 상품을 소개한 결과 방송 당일 거래액이 전주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해 11월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블프 퀴즈쇼’ 역시 32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했다.

특히, 방송에 참여한 쇼핑몰 ‘디어먼트’와 ‘케이클럽’은 당일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같은 시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다른 쇼핑몰들 거래액 역시 전년 대비 평균 약 7배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그재그는 라이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류 구매 성수기에는 매주 2~3회 이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올해 연간 60회 이상의 쇼핑몰 단독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선보인 이색 교통카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까까맛 교통카드 4종

롯데웰푸드와 1020 학생 겨냥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롯데웰푸드와 손잡고 브랜드 IP를 활용한 이색 교통카드를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쌀쌀했던 날씨가 누그러지고 동시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통카드의 수요와 충전 금액이 증가하는 시기를 공략했다. 세븐일레븐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3월1~28일) 교통카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5%가량 신장했으며, 교통카드 충전 금액도 같은 기간 15%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롯데웰푸드는 SNS에서 1020 학생을 겨냥한 굿즈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공개한 아이템은 롯데웰푸드의 베스트 상품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한 교통카드였다. 콘텐츠는 조회수 160만 회, 반응수 1만7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너무 귀엽다’, ‘편의점에서 팔아주세요’와 같은 댓글이 주를 이뤘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그룹, AI 모델로 쇼핑 대축제 연다

‘랜더스 쇼핑페스타’서 첫 선

신세계그룹이 내달 4일 개막하는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앞두고 각 계열사별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랜더스 쇼핑페스타는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신세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은 ‘우주에서 내려온 18명의 외계인’을 콘셉트로 한다. 아이돌 같은 외모를 지닌 인공지능 모델들은 공개 직후부터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2030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계열사들은 각사의 특징점 및 행사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저마다 캐릭터를 만들어 선보인다. 예를 들어, 트레이더스는 대용량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징을 살려, 장을 볼 때 같이 가면 좋은 근육질 몸매의 인공지능 모델 ‘티알(TR)’을,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가 반려견 친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척타필’ 모델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CU “한 끼 든든! 간편함·풍미까지 잡았다”

하인즈와 식사대용 ‘샐러드빵’ 3종

CU가 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소스 회사 하인즈와 손잡고 차별화 베이커리 브랜드인 ‘베이크하우스 405’의 식사 대용빵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조사전문기관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 8명 중 1명 이상(13%)이 한끼 식사를 빵이나 과자 등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식사의 스낵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CU의 연도별 전년 대비 빵의 매출신장률도 2022년 51.1%, 2023년 28.3%, 2024 33.0%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CU는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를 통해 한끼 대용식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사빵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식사빵은 하인즈의 소스 3종을 활용해 만든 샐러드 토핑을 모닝빵에 듬뿍 넣은 샐러드빵 3종(후실키레잡/에그머스타드/참치마요 각 2900원)으로 내달 2일부터 순차 출시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베그젤마', 핵심품목 자리매김... 항암제 시장 주력

베그젤마, 지난해 연매출 2212억
美 비중 34%, 시장점유율 6% 기록
유럽·日 등 글로벌 시장서 성장세
바이오시밀러·ADC 신약개발 박차

셀트리온이 항암제 영역에 주력해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의 신약까지 후속 파이프라인을 폭넓게 구축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가 자사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베그젤마는 지난해 연매출 221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1분기 35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69억원, 4분기 77억원 등으로 매분기 매출 증가세를 지속했다.

베그젤마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미국 판매 1년 만에 총 758억원의 매출을 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베그젤마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6%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베바시주맵 바이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 /셀트리온

시밀러 시장에서 베그젤마는 네 번째로 출시된 후발 주자로서, 베그젤마 처방은 공공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공공 의료보험 규모는 미국 의료보험의 11% 수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메디케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 처방집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제 환급이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메디케어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판

매 전략을 펼쳤다. 셀트리온은 베그젤마가 앞서 유럽, 일본 등에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 미국에서도 매출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그젤마는 유럽에서도 경쟁 제품 대비 2~3년 늦은 후발 주자로 베바시주맵 시장에 진입했는데 최근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전분기 대비 9%포인트 증가한 29%의 점유율로 시장 선두에서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과 격차를 벌렸다. 또 지난해 말 일본에서는 출시 1년 만에 베바시주맵 시장점유율 23%, 처방 2위 등을 기록했다. 베그젤마 일본 출시 1년 만의 성과다.

베그젤마 성장세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 처방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트룩시마와 허쥬마 지난해 매출은 각각 4500억원, 1970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133%, 129%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트룩시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31%, 3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허쥬마는 일본에서 72%, 유럽에서 29%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후속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CT-P51', 다발골수종 치료제 'CT-P44' 등을 개발하고 있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인 면역항암제 CT-P51도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표적항암제 CT-P44의 경우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이 올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신약 개발도 항암제 시장을 정조준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CT-P70' 임상 1상에 착수해 환자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며 암세포에서 활성화된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셀트리온은 방광암 신약 후보물질 CT-P71과 CT-P72, CT-P73 등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우, 베그젤마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후속 연구개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부광약품, 1000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2030년 20위권 제약사 도약 목표"
시설자금·신약 연구개발에 사용
콘테라파마 지원 자본투자도 추진

부광약품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부광약품이 공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모집가격은 1주당 3310원으로 총 3021만주를 모집해 모집총액은 999억951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년 20위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2성장의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쿼터점프로 열매를 맺어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설비 도입과 기존 시설 확장에 총 84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공장을 인수하거나 제조처 영입권 등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만 350억원을 활용한다. 향후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340억원을 들여 연구 및 액체 제조 등을 재정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기존 10억정에서 15억정으로 50% 늘려 공급 부족, 품질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부족한 생산 능력이 잠재적 매출과 영업이익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신 내용고형제 생산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는 155억을 투입한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약 155억원은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집행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 기존 제제 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광약품이 설정한 전략 질환군은 중추신경계(CNS), 순환기, 당뇨, 호흡기, 소화기 등이다. 특히 부광약품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을 적응증으로 한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 불면증 치료제 잘레딤,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을 내놓으며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시장에 지속 집중해 왔다. CNS 의약품 사업은 지난해 전년 대비 4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호실적을 견인했다.

아울러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지분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를 위해 NH투자증권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6월 2일이며 확정 발행 가격 산정은 7월 3일에 이뤄진다. 이후 우리사주, 구주주, 일반 청약이 이어지고 7월 28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된다.

한편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75억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44억원에서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이청하 기자



지난 2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HK이노엔 전략지원실 김기호 전무(왼쪽에서 세 번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K이노엔

HK이노엔-해수부, '어복버스' 사업 체결

어업인 의료·생활·행정 복지 서비스
HK이노엔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와 '어복버스(어촌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복버스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섬·어촌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다. 의료, 생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심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어업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이미용, 목욕 등의 혜택을 갖췄다. 행정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경영상 노무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 사업 기금을 출연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HK이노엔은 지난해 7월에도 해양수산부와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기금을 조성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1일 1구미로 현대인 활력 충전"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출시

조아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B군 3종,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E,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렌, 정성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뼈 건강과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망간,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한 미네랄 건조효모 폴리베타렌 등을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조아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조아제약

또 오렌지 맛과 향이 더해져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1일 1구미로 바쁜 현대인이 활력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엘레나', 연 매출 300억 돌파

여성·질 건강 유산균 新영역 구축

유한양행은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 '엘레나'가 연 매출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출시한 여성 유산균 엘레나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 장 건강 중심이었던 국내 유산균 시장에서 유한양행은 '여성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엘레나는 여성의 질과 장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릭스프로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

당 성분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개별 인정형 원료다.

유한양행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산균 증식과 면역 건강을 위한 '엘레나퀀', 아이부터 어른까지 섭취할 수 있는 '엘레나 스틱'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올해 1월에는 신제품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 안정 효과를 주는 '엘레나 테아닌'도 추가로 선보였다. /이청하 기자

KÖPFKINO

당신의 일상을 영화처럼,
모던한 디자인과 퀄리티까지
모두 갖춘 모듈가구



QR코드를 찍고 코프키노 가구를 바로 만나보세요.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
 LG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특허청과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기술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LG전자 IP센터장 조희재 부사장(왼쪽)과 특허청 목성호 차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고객중심 경영 앞장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고객전략협의회와 시너지추진협의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앞줄 왼쪽) 등 경영진들은 고객신뢰와 고객경험, 저출생·고령화를 올해 고객전략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NH농협금융



한솔제지-전주시, 한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한솔제지가 전주시와 '한지문화 보존 및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안정적인 보존 및 한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우범기 시장(왼쪽 두번째),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제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4월 20일까지 대학생 문화행사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주제는 '민화'로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과 소망을 담고 있고, 궁중이나 사대부 회화에 비해 표현이 자유롭고 해학적이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되며, 전문가 멘토링, 활동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부음

▲김남희씨 별세, 이동진(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이성진·이배진·이기진·이해숙씨 모친상, 강병열·김종대씨 장모상=29일, 건양대병원장례식장 특102호실, 발인 4월1일, 042-600-6660
 ▲김성근씨 별세, 김순옥씨 남편상,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김은정씨 부친상, 이규환(일산신협 마두분점지점장)씨 장인상, 신혜인씨 시부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1일, 02-3410-6901

효성그룹, 故조석래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조현준 회장 “아버지 뜻 이어받아 백년효성 만들 것”

조 회장 등 유가족, 임원 참석 “한미일 경제안보동맹 역할 최선”

효성그룹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29일 조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식이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치러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과 임원, 내빈 등이 추모식에 참석했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약력 소개, 추모사 낭독,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 헌화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을 추모하면서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시대의 변화를 읽는 혜안과 강철 같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점한 결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위기는 언젠대 닥쳐오고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생전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셨을 때는 한일 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조현준 효성 회장 및 (왼쪽에서 네 번째)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있다. /효성

계, 한미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걱정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회상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께서 ‘항상 공학도가 더 사랑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을 예의주시했던 점에서도 새삼 선견지명이 느껴진다”라며 “아버지께서 매년 공학도 500만 명을 배출하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중국 공학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시며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효성을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사, 글로벌 정세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백년효성을 차돌같이 단단한 회사, 어떤 위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한미일 경제안보동맹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970년 동양나이론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동양폴리에스터, 효성물산, 효성중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제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2년 2대 회장에 오른 뒤에는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 부문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드림보이스’ 10주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확대

4450세트 음성도서 제작

롯데홈쇼핑이 전개하는 시각장애 아동 지원 나눔 활동 ‘드림보이스’가 10주년을 맞았다.

드림보이스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6년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운영해 온 음성도서 제작 사업이다. 시즌1 초기 기획 단계부터 쇼호스트와 음악감독 등 방송 전문가 임직원들이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드림보이스는 시즌7까지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96권의 도서를 녹음하고 4450세트의 음성 도서를 제작했다. 제작된 도서는 복지시설 1700여 곳에 기증됐다. 특히



롯데홈쇼핑 사회공헌 활동 ‘드림보이스’에 참여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있는 임직원 모습. /롯데홈쇼핑

시즌7부터는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음성도서 녹음에 참여하는 ‘낭독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림보이스는 장애로 인해 학습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교과서 수록 도서를 중심으로 음성도서를 제작한다. 지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도 음성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임직원 재능 기부로 제작한 오디오북과 음성도서 제작 기부금 7000만원을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롯데홈쇼핑 박재홍 지원본부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서울맹학교 정은영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쇼호스트 등 방송 전문가를 비롯한 임직원 170여 명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제작한 음성도서 26권을 기부했다. 아울러, 음성도서 제작 사업 ‘드림보이스’ 운영을 위한 기부금 7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음성도서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6곳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드림보이스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시즌8 오디오북제작을 위한 녹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산불 피해복구 지원

한경협, 성금 5억 전달... 임직원 봉사단 파견

류진 회장 “복구 적극 동참”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도



중 순직한 진화대원 유가족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한경협은 회원사에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독려하고 임직원 봉사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28일 회원사에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경제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사진)은 “산불로 인한 사상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제계도 피해지역 지원과 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애경산업 3억 상당 물품 전달

애경산업은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3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애경산업의 구호물품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 치약, 칫솔, 삼푸, 바디워시 등으로 구성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www.dseshop.co.kr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름,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NEW 세븐에이트 N 블랙샴푸
Quick Touch 3 Minute Black Shampoo

DB
다크 브라운
Dark Brown

2 in 1
샴푸와 염색을 한번에~
브라운으로 리턴하다.

DONGSUNG

NEW 세븐에이트 N 블랙샴푸
Quick Touch 3 Minute Black Shampoo

1 제
내추럴 블랙
Natural Black

1 제
다크 브라운
Dark Brown

DONGSUNG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신탁업자도 재건축사업 시 위탁자 가능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해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해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방법에 관해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실제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실무에서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조합 시행 방식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신탁업자 등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처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위탁자 지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신탁업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신탁업자는 이

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실제로 신탁하지 않은 이상 그 토지등소유자를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탁자의 지위가 반드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의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자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위 사건의 원심 역시 동일한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

국내 제약업계, 오너 경영 본격화...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며 경영진 세대교체를 이뤄내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에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올랐다. 임주현 부회장은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녀다. 선대 회장의 신탁개발에 대한 집념과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산 신약 '자큐보정'을 발매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시카우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입에 성공한 제일약품은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를 세웠다.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는 자큐보정을 개발한 자회사 온코너 테라퓨틱스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는 고(故) 한원석 제일약품 창업주의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이다.

보령은 지난달 김정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김정균 대표는 보령 창업주 김승호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은 기존 유준하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유준하·윤인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윤인호 대표는 동화약품 오너 4세로,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의 장남이다. 매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K바이

오'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의 경우, 서정진 회장의 아들 서진석 대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글로벌 현장 곳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온 가운데, 서진석 대표도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한다. 서진석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았고 특히 주총장에서 주주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들 모두 제약 기업 본연의 신탁개발과 현대 사회에 적극 발맞춘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분 확보,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 경영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이지만, 선대 회장들의 과업을 이을 핵심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본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31일 (음 3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48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60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72년생**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8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야 할 터.



37년생 가족 일에 이등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49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61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73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소란.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38년생 치과 치료를 늦추지 말고 낱을 잡도록. **50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62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74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신념으로 다시 도전해보자. **86년생** 배우자의 의견 존중.



39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51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63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함. **75년생** 민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87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레가 성사.



40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52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은 일부터 해 나가보라. **64년생** 분수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76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88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41년생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53년생**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65년생**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77년생** 외출하여 직접 부딪혀 추진하면 소득이. **89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42년생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54년생** 참외밭을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66년생** 시기상조라 인내심을. **78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90년생**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43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55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7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79년생** 재물 나눠주고 부부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91년생** 모여서 소란스럽다.



44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56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68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80년생** 가도 가도 쉬은 길이 안 나오니 산 넘어 산이다. **92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오도록.



45년생 생명만큼 중요한 것도 있으니 자유로움일 것. **57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69년생** 공부 하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81년생** 간담이란 간과 쓸개를 합친 말. **93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46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58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70년생** 일이 순조롭다. **82년생** 배려 없이 자기만 아는 사람에게 사랑이 찾아올지. **94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빠다귀를 산다는 표현.



47년생 생각하면 할수록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양보라. **59년생** 오후에 큰일이 계약. **71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83년생** 지난날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송. **95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김상희의四季 결혼 로망

정치적 갈등을 가름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별 갈등'이고 이 갈등은 군 문제나 취업, 가사 분담 같은 실생활 문제에서도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 특히 대면접촉이 필요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남녀 갈등은 더 심하고 어느 매체의 보도로는 성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데이터 분석 자료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SNS와 포털, 커뮤니티 자료 5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정치와 세대 직장 내 갈등이 5.5%에서 1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성별 갈등 관련 내용은 73.6%로 가장 높았다.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저토록 심하다면 결혼은 적과의 동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혼을 꿈꾸며 조바심내는 P양이 있다. 84년 양력 12월생인 P양은 자신보다 2살 위인 남자와 소개 아닌 소개를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나이도 있고 하니 주변에서는 어서 결혼 얘기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도 마음이 점점 조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냥 만나기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얘기가 통하고 서로 직장도 안정되긴 하니 이만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리 급해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당연히 조바심이 들면서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올해 을사년에는 결혼운이 있겠는지, 이 사람과의 궁합은 어떤지가 궁금한 것이다. P양의 느낌대로 남자는 결혼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임술년 음력 삼월생인 남자 친구는 지지에 처궁이 형살이 있는 경우여서 여자로 인해 뭔가 피곤한 기운이 있다. 혼자 있을 때 더 편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궁합 적인 면은 보통은 넘기에 배려심만 잃지 않는다면 나름 갈수록 후길(先凶後吉)한 궁합이라고 보여진다. 이럴 때 여성의 적극적인 자세도 나쁘지 않다. 결혼 로망이 자존심보다 세다면.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퍼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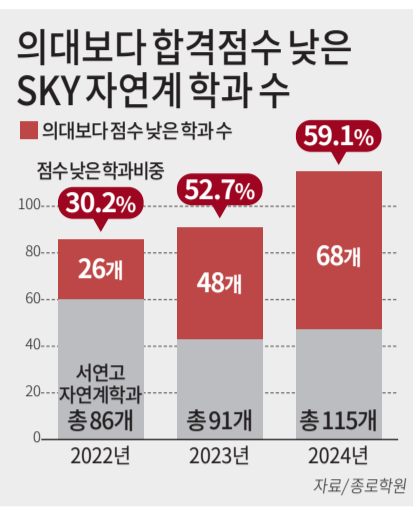
“서울대 보다 의대 갈래요” SKY 자연계 학과 합격선 하락

2024학년도 SKY 자연계 60% 전국 의대 최저보다 합격선 낮아 ‘합격선 낮은 학과 더 많아질 것’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 최저 합격점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서 SKY대학 자연계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 등의 약학 계열 및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기준 서·연·고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합격점수보다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를 차지했다.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상위 70%컷, 즉 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 중 26곳),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과 중 4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자연계 낮은 학과 비율은 2022학년도 대비 2년 새 2.61배 증가했다. 이 기간 서·연·고 자연계 학과가 늘어난 것은 학과 신설, 기존 학과 세분화, 전형 부문 세분화 등이 원인이다.

2024학년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 학과로, 전체학과 115개 학과 중 33.9% 차지했다. 2022학년도에는 86개 학과 중 29개 학과로 33.7%

를 차지했다. 단, 2023학년도에는 91개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23개인 25.3%가 의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례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수가 적은 치대의 특정년도에 합격선이 높아질 경우,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보다 치대 합격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국 의대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점수가 낮은 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정시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혼밥탈출’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

10가구 중 4가구 ‘1인가구’ 정리 컨설팅 병원 동행 등 은둔·고립 막고 보안 늘려



1인가구 맞춤형 경제교육. /서울시

서울 열 집 중 네 집이 1인가구에 이르면서 서울시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과 자립, 연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간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세대인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가구(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고립·은둔과 저장 강박을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팅’이 신규로 가동된다. 특히 고립·은둔 고위험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일부영역 정리수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이 혼밥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식사도 제공된다.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한다.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1인가구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횡수를 확대한다.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을 지원한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골목길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등은 대폭 늘린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AI기반 지능형 CCTV 약 1800대를 신설한다. 아울러 화질개선과 보안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노후 CCTV 3300여 대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도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 ▲맞춤형 경제교육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우리동네 펫위탁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의대생 속속 복귀... 수업거부 여부 ‘변수’

복귀 마감 앞두고 의대생 등록 이어져 대학 ‘수업거부, 유급·제적처리할 것’

정부가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월 말일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대학 복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단,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복귀 범주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최근 100% 등록한 데 이어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 휴

학을 멈추고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학생 복귀 규모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와 울산대는 전원이, 연세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했지만, 이후 ‘전원 복귀’ 기준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절반 가량 학생이 돌아오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 교육부 설명이다.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복귀 의대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 최소 학점 수강 신청 등의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도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AI 등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건국대학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지난 28일 건국대 신공학관 1층 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및 실감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건국대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AI·SW 기반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모델 구축 ▲초·중·고 대상 디지털 리더십 교육 확대 ▲교사 연수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원종필 총장은 환영사에서 “건국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늘봄교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배포

컴퓨터 없이 정보과학 핵심개념 학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를 제작해 31일부터 서울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68개교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언플러그드(unplugged)란, 컴퓨

터 없이 신체 활동이나 토의, 역할놀이 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과학의 핵심 개념을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 ‘정보’ 단원과 중학교 정보 교과와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등 5대 핵심영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AI와 SW 교육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없이도 놀이와 협력 중심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실생활과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31일 (월)
음력 : 3월 3일

수도권 날씨
0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13, 동두천 -3/13, 가평 -4/13, 파주 -4/13, 서울 0/13, 양평 -2/14, 인천 1/11, 수원 1/12, 용인 1/12, 평택 -2/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덴마크, “美 부통령 말투 달갑지 않아...안보 협력 강화에는 동의”
▲트럼프, 관세 도입 후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진 뉴시스

▲미얀마 지진, 원폭 334개 맞먹는 위력...사망자 10만 넘길 가능성도
▲“反 머스크” 전 세계 확산...각국 테슬라 매장 곳곳에 시위대 결집

▲나토, 내주 외교장관회의...美방위비 증액 논의 할 듯
▲하마스, 중재국 새 정전 제안 수락...이스라엘군은 라파 공격 지속



유통업계
가격에 품질까지
'밸런슈머' 공략
L1



Life

셀트리온 '베그젤마'
핵심품목으로
항암제 시장 주력
L2



“생명 지키는 부품 타이어... 판매 넘어 고객안전까지 책임”



새벽을 여는 사람들

금호타이어 구로디지털점 김중겸 대표

“타이어를 통해 고객 안전을 유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졌다.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 바퀴 하나하나에 고객의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어떤 것도 대충 할 수 없다는 말 속에서 강한 책임감이 들어왔다. 김중겸 금호타이어 디지털점 대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매장에서 20년간 타이어 판매와 수리 업무를 이어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타이어로 시작한 하루, 타이어로 끝난다

김 대표가 여는 새벽은 남들보다 무거웠다. 김 대표는 “동이 틀 때 즈음, 미리 가게로 나가 문을 열고 지하에 미리 발주해 쌓아놓은 타이어들을 옮겨 정리한다”며 “실제로 타이어가 23인치인데 꽤 무겁다. 보통 키로수가 4~20키로까지도 가는 게 있다. 잘못 들쳐업으면 어깨가 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무게에 책임감까지 더해졌다. 그는 “무겁고 힘들어도 그타이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며 “자동차 타이어를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해 보면 쉽다. 사람의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자동차의 발인 타이어도 마찬가지다. 타이어를 다루는 게 무겁고 힘들어도 고객의 안전이 옳이 달린 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허투루 던지거나, 쉽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고단하지만 조심스러운 아침은 정신없는 오후로 이어진다. 하루 일과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일과 자체는 단순하지만 오후에는 꽤 바쁜 일정이 이어진다”며 “디지털 단지 내에 기업체들이 한 6000개는 더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나 최고경영자(CEO)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주로 오후에 오신다. 오후에는 밥도 못 먹는 일이 많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있다”고 전했다.

◆굴러가는 바퀴가 신기했던 소년, 타이어에 미치다

김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자체 보다는 이를 움직이게 하는 타이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동년 고무 덩어리가 성인 여러 명을 태우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에서 묘한 고단함과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김 대표는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 타이어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해 퇴직 후에는, 전문 엔지니어와



김중겸 금호타이어 구로디지털점 대표가 매장 내부에서 포즈 취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타이어 판매·수리 20년 경력 전문가
고객 안전 달린 일... 강한 책임감 느껴
타이어에 대한 호기심·애정 남달라

생명 다루는 부품... 품질 가장 중요해
저가 내세우는 온라인 업체 조심해야

고객과의 소통으로 맞춤형 제품 소개
타이어 통해 가장 안전한 운행 도울 것

함께 타이어 판매 및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마치 자동차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타이어의 역사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었다. 그는 “1839년에 고무 타이어가 새롭게 탄생했다. 이어 자동차용 공기압 타이어가 나오고, 1930년대 즈음 합성 고무 개발이 이뤄져 지금 타이어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다양한 기술 발전이 접목되고 현재 스마트 타이어까지 개발된 거로 안다. 자동차 후방 산업으로써 자동차 기술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중겸 대표.

발전과 함께 타이어도 기술과 접목해서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교체용 타이어 유통 시장도 온라인 추세... 눈속임 유의해야

김 대표는 교체용 타이어 판매도 온라인 유통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타이어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온라인으로 타이어를 구매하고 주변 전문점을 통해 배송을 신청한 뒤, 교체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대리점에서 구매와 교체를 한꺼번에 진행했던 과거와 또 다른 양상인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 현실로 보서는 타이어 판매가 온라인 소비로 흐름이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조금더 비교해 볼 수 있는 저렴한 타이어를 찾다 보니, 타이어 시장 상황도 여타 유통업체처럼 주로 온라인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흐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타이어 단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거기에다 부수적인 금액이 추가로 붙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가 메리트만을 내세우는 온라인 업체 눈속임에 현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타이어가 생명을 다루는 부품이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타이어의 내구성을 꼭 확인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에... “타이어도 깃털 같죠”

김 대표는 힘들어도 고객의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에 힘이 난다고 전했다. 김 대

표는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타이어 제품을 소개하고, 이에 맞는 타이어 교체를 진행한다”며 “같은 타이어 규격이라도 고객의 주행습관이나 차량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그러려면 상담 과정에서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다. 그렇게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깊게 고민하다 보면, 가끔씩 꼼꼼한 상담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날 수 없다. 그저 감사하다는 고객 목소리, 감사하다는 리뷰 한 줄을 떠올리면 아침에 옮기는 무거운 타이어도 깃털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누가 어떤 자동차를 타든, 타이어를 통해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타이어 상태나 도로 상황 등 외부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날씨 변화로 인해 도로 표면 온도가 급격히 변할 때, 타이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공기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타이어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비”라며 “모든 소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어는 단순 판매 상품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타이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경북·경남 산불 피해 성금 2억원 ‘비공개 기부’ 뒤늦게 알려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시즌 개막 2경기만에 첫 안타·타점·도루 일제히 기록 /사진 뉴스시스

▲NC, 창원NC파크 구조물 붕괴 사고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할 것”
▲광주FC 이정호 감독, ‘물병’ 발로 차자 퇴장 조치...이레적 ‘다이렉트 퇴장’

▲여자배구 정관장, 13시즌 만에 챔피언 진출... 고희진 감독 판단 유효
▲지드래곤, 공연 1시간 반 지연에 뒤늦게 해명... “안전상 이유로 지연된 것”